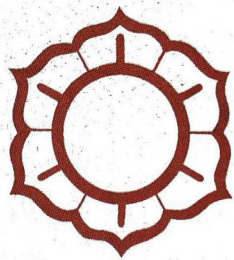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홀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3년
10월 1일
수요일
제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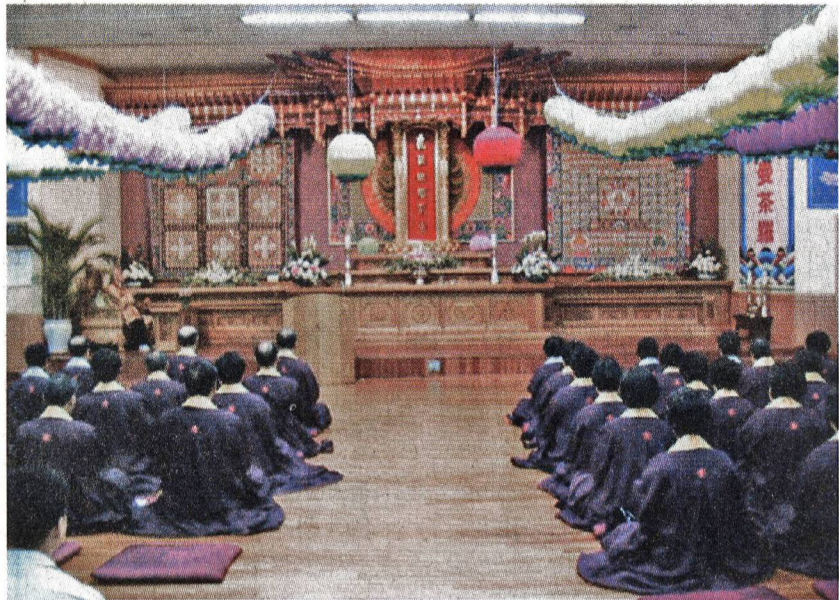
이 달의 종조법설
사람의 생사는 범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의 경중에 있는 것이다. 생사해탈은 애착에서 벗
어나 속인사 대천명으로 내가 선업정행으로 살다
가 죽는 것은 조금도 애착함이 없다는 사에 대한
공포감이 없는 것이 곧 생사해탈이요, 이것을 행
함이 곧 불이다.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총지종 제62회 추계 강공회 종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지난 추계강공회에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하여 강공회 원만을 위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총지종 제 62회 추계강공회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통리원에서 전국의 스승님 및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의 현황을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

색할 예정이다. 이번 강공회에는 원의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총지종의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사원신축과 교화의 관계성을 조명하고, 젊은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정비, 현재 모든 시무교육을 종료한 시무들의 인사발령 문제 등 종단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공회는 현재 권위중인 종령의 추대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승단총회에서 현행법대로 종령을 추대하되 추대방법만 개정하여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9월 26일 집행부 및 종의원이 참석하여 추대방법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번 강공회에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추대할 예정이다.

총지종 법공 통리원장은 제 62회 추계 강공회를 개최하면서 "이번 강공회에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논의만 하고 실행을 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이번에는 실행안까지 논의하는 보다 심도있는 강공회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교도들의 종단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부산경남교구 지회 연례회의

부산경남교구지회(지회장 신인복)는 9월 16일 경남 진주 화음사에서 부산경남교구 각사원 신정회 회장들이 참석하여 종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부산경남교구 지회는 "종단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자녀들을 제도하기 위해 종단의 납골당을 빠른 시간내에 본산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 스승 및 교구들 중 장례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장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교도가정에서 초상을 당했을 때 이들이 참석하여 모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도들 중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료 양로원을 개설 해 줄 것"을 종단에 건의하였다.

한편 지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교도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하며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원의 신정회 회장으로서 사원의 올바른 실행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총지종 수재의연금 전달 태풍 매미의 피해자들 위로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해정, 원승, 법등정사가 수해지역인 강원도 정선군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총지종은 9월 17일 추석 오전에 갑자기 밀어닥친 태풍 매미에 의해 많은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어 버림에 따라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를 통해 위로금 일천만원(10,000,000)을 전달하였다.

법공 통리원장은 "삼악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으로 지은 업이 첫째가 되고, 육바라밀 중에서는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간담은 능히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버리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 살아생전 아무리 장만해도 죽은 다음 가져갈 것은 오직 지은 업뿐이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탈들은 하루 아침의 티끌이 되느니라"라는 자경문을 인용하면서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것은 불사

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덕목인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서울·경인 교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 정선지역에 교구장 해정장사, 밀인사 원승장사, 총지사 법등정사가 직접 방문하여 생수600병, 쌀 15포(20kg), 라면 40박스를 전달하고 수재민들을 위로하였다.

부산경남교구에서도 부산경남교구 스승님과 지회에서 실시한으로 칠백만원(700만원)을 모금하여 경남 통영, 마산지역에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도가정을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에 동참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불자로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총지캠페인

수재민 돕기 성금

얼마 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특히 농민과 어민들에 대한 피해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터만 행하니 남아있는 집, 빼때만 앙상하게 남겨진 비닐하우스, 찢겨 나간 과일나무 가지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들과 배 그리고 양식장.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그들의 모습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사전을 통해서 보도되고 그 보도를 본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 속히 그들의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지만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완전한 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두가 그들이 잃어버린 집, 논, 물에 떠내려간 가족, 부서져버린 어선, 양식장, 폐허처럼 되어버린 가게 등 그들의 생활 터전이 복구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러 곳에서 돕기 위한 성금이 모이고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더해지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성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단체나 접수하는 기관에 불신을 가지기도 하고 성금 내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물론 성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착오나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것이다.

일본 에도시대의 황벽종(黃壁宗)의 승려 데스겐(鐵安:1630~1682) 선사는 불경을 간행하기로 서원을 세워 그 일을 진행해 나갔다. 목판에 글을 새겨 경전을 찍어 내는 이 방대한 불사는 그야말로 대역사였다. 선사는 10년간이나 준비를 하여 불경을 간행할 정도의 재물을 모았다. 그런데 그해 큰 폭우가 내려 우지강이 범람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다. 데스겐 선사는 지금까지 모은 기금을 망설임도 없이 풀어 수재민들에게 할 폰도 남김없이 썼다. 그리고 데스겐 선사는 다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6년 만에 다시 불경을 간행할 기금이 거의 모였다. 그런데 또 나라에 큰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번에도 모았던 기금을 재난 구제에 한 폰도 남김없이 다 털어 넣었다. 데스겐 선사는 다시 세 번째로 기금을 모으셨다. 그래서 처음 기금을 모은 해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데스겐 선사는 뜻을 이룰 수 있었다. 그가 제작한 목각판은 현재 교토에 있는 황벽사(黃壁寺)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후세 일본 사람들은 말한다. "데스겐 선사는 평생에 세 차례 불경을 간행하였고 그중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두 차례의 불경 간행, 즉 재난을 구제한 것이 목판에 새긴 불경보다 더 값진 것이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이 하루 빨리 생활 터전을 복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는 수재민 돕기 성금은 그 어떤 돈 보다 값진 것이다. 데스겐 선사의 이야기처럼...

부산·경남교구 자비실현 부산지역 어려운 이웃돕기

부산·경남교구는 9월 9일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불우한 교도들에게 위로금 오십만원과 종립동해중학교 불교반 학생 34명에게 5만원씩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전달한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지난 7월 경남 거창 농활장에서 열린 방생법회에서 어류방생과 더불어 불우한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인간방생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마련되었다.

부산경남 교구장인 해암 종사는 "방생에 있어 어류방생도 중요하지만 인간방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 병자들을 보시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배고픈 자 있으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무주상보시를 가장 중요한 율행실천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듯이 항상 나보다 어려운 남을 먼저 생

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작은 모래알이 모여 큰 성곽을 만들 듯 보살님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제 6차 한·중·일 불교도 대회 불교인들의 교류를 통한 불교의 활성화

제 6회를 맞이하는 한·중·일 불교도 대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금번 대회에서는 일본 불교 주요종단 총본산과 주요 사찰을 방문하여 일본 불교에 대한 체험과 견학을 하게된다.

또한 한·중·일 삼국간의 불교도들은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삼국의 불교발전을 위한 공동방안을 모색하여 전세계에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한국에서는 총지종을 비롯하여 조계

종, 태고종, 진각종 등 한국 불교 종단 실무자 약 120여명이 참석하며 총지종에서는 법공 통리원장, 의강 중앙종의회 의장, 법성 사강원장, 화령 법장원 연구원 등이 대회에 참석하여 총지종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통밀교 종단으로서의 수행체계 및 의례 등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주요 밀교종단들의 대표자들과 면담과 토론을 통해 일본밀교의 현황과 포교방법, 수행체계 등을 체험하여 종단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죽비소리

'사물의 참된 존재방식에 대한 통찰(正見)이란 무상(無常)과 고(苦)와 무아(無我)를 보는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소유할 만한 가치도 없고 어떤 상태로 될 만한 가치도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것도 나 혹은 내 것으로 집착할 수 없고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매력적이라거나 불쾌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다

- 붓다다사 '상좌불교의 가르침'중에서

한국에서는 총지종을 비롯하여 조계

제62회 추계강공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 그리고 종단 발전

총지종의 의제와 중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각 사원별로 교화하시는 스승님들의 교화경험담을 교환하고, 선배와 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화합을 조성하고, 서로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종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제 62회 추계 강공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2년 10월 21일(화)~총기 32년 10월 24일(금)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총지종 스승님(정사, 전수), 기로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사설

강공회의 활성화를 바라며 회의 위주의 강공은 지양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강공회가 이제 62회 째를 맞게 된다. 강공회(講工會)는 흔히 강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총지종만의 특이한 전통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고 최소한 연 2회에 걸쳐 실시되어 왔다.

원정종조께서는 총지종의 창공과 더불어 강공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전통으로 자리잡도록 하셨는데 강공회를 통하여 스승들이 교화에 필요한 교리를 충분히 습득하고 스승으로서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했다. 즉 강공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스승들이 불교교리와 총지종의 종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교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일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승직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주기적인 각성을 통하여 스승이 참다운 스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참된 교육의 장이었다.

과거의 강공회는 기라성 같은 큰 스승님들께서 강벽으로 버티고 계시면서 훌륭한 법을 설하였기 때문에 강공회를 앞둔 승직자들의 기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강공회가 끝나고 나면 뿌듯한 심정으로 교화에 열의를 다시금 불태우면서 다음 번 강공을 학수고대하였다고 한다. 강공이 승직자들의 교육과 교화의 열의를 일깨우는 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서 시작된 강공회가 어느 시기엔가 변모되어 예산 심의 등 종단의 현안에 대한 회의 중심으로 일관하고 스승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뒷전으로 돌리는 듯한 양상을 보여왔다. 물론 종단의 사정상 모든 승직자가 한꺼번에 모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공회 기간 동안에 승단 전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을 의논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사정은 이해가 가나 종단의 장래를 생각하면 교리교육과 승직자의 정신자세확립이라는 강공회의 원래 취지를 잃지 않고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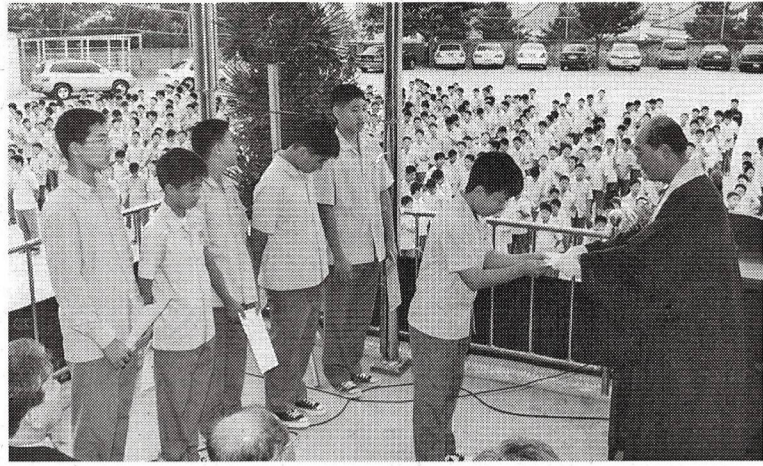
스승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년에 겨우 두 번 밖에 개최되지 않는 강공회마저 각종 회의를 핑계로 재교육의 기회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종지와 종풍을 이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큰 스승들께서 타계하신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본 종단의 기본이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이해지려는 종풍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공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일주일이 못되는 짧은 기간이나마 학습 위주의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일정을 인내해야 할 것이다. 예산심이나 종단현안에 대한 회의는 가급적 강공 기간을 피하여 따로 소집하도록 하고 강공회 기간만이라도 스승들이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리 학습에 치중해야 한다. 강공회 기간 동안에 강사 선정도 법정원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폭을 넓혀 일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승직자 중에서 우수하고 능력 있는 분을 발탁하여 강단에 서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반드시 내부 인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유능한 인사를 초청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62회를 맞이하는 긴 역사의 강공회가 더욱 발전하기는커녕 퇴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종조 원정대성사님과 작고하신 선배 스승님들의 기대와 원망(願望)을 저버리는 배신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총리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각성하고 강공회가 변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 조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강공회의 횡수도 연 2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소집이 어렵다면 그룹을 나누어서라도 자주 실시하도록 하여 승직자의 자질향상과 보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제36회 개교 기념식 총지종 장학금 전달 및 장기 근속자 표창



동해중학교 개교 기념식에서 법공 총지종 총리원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기념식이 9월 24일 오후 2시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동해중 이사장, 총지종 총리원장, 류은숙 운영위원장, 조성원 총동창회 회장이며 라인주택대표 등 여러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교감 이대우, 박수현, 허병자교사가 30년 근속상을, 이춘민, 정준원, 김병문교사가 20년 근속상을, 김은경교사가 10년 근속 상을 수여받았으며, 불교불 학생 권성진, 이건희, 이우람, 차철호, 이상

민 5명은 총지종 장학금 각 20만원 을, 3학년 강민수학생은 개교기념 작품전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수상 동해중학교 이사장은 치사에서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급변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며 모든 것이 공 급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자기 경쟁력을 길러야 하며 지금 순간 근속상을, 김은경교사가 10년 근속 상을 수여받았으며, 불교불 학생 권 성진, 이건희, 이우람, 차철호, 이상

민 5명은 총지종 장학금 각 20만원 을, 3학년 강민수학생은 개교기념 작품전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수 상 동해중학교 이사장은 치사에서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급변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며 모든 것이 공 급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자기 경쟁력을 길러야 하며 지금 순간 근속상을, 김은경교사가 10년 근속 상을 수여받았으며, 불교불 학생 권 성진, 이건희, 이우람, 차철호, 이상

종조명도절 추선불사

원정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재확립



제23주기 종조명도절 추선불사에서 스승님, 유가족, 교도들이 원정 종조님께 헌향하고 있다.

종조명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경인교구는 총 지사에서, 지방은 각 교구별·사원 별로 봉행되었다.

명도절 추선불사는 개식사, 훈향 정공, 천수경동송, 실지정진, 총리원 장 인사말씀,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 었으며 법공 총리원장은 인사말씀에 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추 선불사에 참석하여 주신 교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선불사는 종조전에서 봉행할 예정 이었으나 종조님의 유품과 서적 등 의 전사가 예정보다 시간이 경과되 어 부득이하게 종조전에서 봉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원정 종조님께서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 주로하고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 메를 본존으로 삼님과 유행을 수 행의 덕목으로 진언염송과 결인으로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는 즉신성 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종조님의 이러한 심오한 뜻을 헤아려 후대에 발전시켜 나가 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추선불사에 참석한 교도는 "저는 총지종 창종당시부터 원정 종조님을 모시고 생활했던 사람으로 종단에서 매년 이렇게 추선불 사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 합니다.

그러나 종조님은 총지종의 교상 과 사상을 정립하고 총지종의 입교 개종을 만드시고 무릇 번뇌에서 고 생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손 수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 으시고, 생전에 자신의 안락과 행 복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아주 청렴 하고 결백하신 분으로 스승님 및 교도들은 종조님의 이러한 뜻을 헤 아려야 합니다.

이번 추선불사에 교도들이 적게 참석한 것을 보니 지금까지의 추선 불사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다 보니 교도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 같 습니다. 다음 추선불사에서는 다양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종조전의 조성과 더불어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교상 을 재확립하여 탄신 100주년을 기념 하는 준비를 강구할 계획이다.

총지종 유지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우선 본 종단의 정확한 법인 의 명칭은 "재단법인 불교총지 종 유지재단"이다. 여기서 재단 법인(財團法人)이란 "일정한 목 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法人格)이 부여 된 단체"를 말한다.

본 종단의 일정한 목적이려면 크게는 즉신성불(即身成佛) 이요, 작게는 생활 속 에서 불도(佛道)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유 지재단 사무국에서 하는 업무는 내적으로 모든 사원의 관리 및 포교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재산 을 관리하는 것과, 외적으로 모 든 관공서 관련 업무, 재단법인의 법적 유지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

다. 이 종단내 남골당, 기도도량 건립 기원 남과 교 령도 유 도들이 지재단의 업무는 막중하며 중차 대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유지재단은 재무와 공사로 분 리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모든 사원의 크고 작은 수리 및 신축, 토지·건물 매입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현재 재단 공사는 건축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종 단의 현황과 정서에 맞게 진행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 건축 양식과 경비절감 등 장점이 발 생하여 종단 건축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총지사 2층의 종조전 공사를 담당 진행하여 훌륭하게 완공함으로써 인해 이들 능력의 우수성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미 루어져 있던 사원 신축의 기준 을 세우 등 건축양식의 통일성 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광주 법황사와 전주 흥 국사 사원신축에서 종단의 건축

양식에 어느 정도 사원의 모델 이 되었으나 앞으로 진행 될 서 울 관성사(觀星寺), 부산 덕화사 (德和寺) 신축 공사를 마무리 하게되면 사원의 모델 및 공사 비의 기준이 세워질 것이라라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모든 사원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점이다. 사원을 직접 방문 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원 칩이나 현재 서류상으 로만 사원의 문제를

접수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시 사원의 주관자에게 일을 의탁하 포교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재산 을 관리하는 것과, 외적으로 모 든 관공서 관련 업무, 재단법인의 법적 유지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

여 스승 다. 이 종단내 남골당, 기도도량 건립 기원 남과 교 령도 유 도들이 지재단의 업무는 막중하며 중차 대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유지재단은 재무와 공사로 분 리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모든 사원의 크고 작은 수리 및 신축, 토지·건물 매입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현재 재단 공사는 건축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종 단의 현황과 정서에 맞게 진행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 건축 양식과 경비절감 등 장점이 발 생하여 종단 건축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총지사 2층의 종조전 공사를 담당 진행하여 훌륭하게 완공함으로써 인해 이들 능력의 우수성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미 루어져 있던 사원 신축의 기준 을 세우 등 건축양식의 통일성 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광주 법황사와 전주 흥 국사 사원신축에서 종단의 건축

알림방

- 제62회 추계강공회를 10월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리원에서 개최함
- 흥국사 밀공정 전수님 막내딸 여선영양의 결혼식을 10월 4일 부산 연산동 목화예식장에서 거행함
- 부신경남교구 스승님 관불수련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백담사 불정합에서 열림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3년 8월 26일부터 2003년 9월 24일까지

개천사 김영현 20,000	만보사 김원섭 50,000	벽룡사 오미순 5,000	운천사 이형란 20,000	지인사 무명씨 5,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벽룡사 제애덕 3,000	자석사 배무자 10,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개천사 윤보현 10,000	만보사 정쾌자 50,000	벽룡사 지신주 5,000	자석사 채춘자 5,000	총지사 지심행 10,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성화사 법 공 50,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총리원 인 선 10,000
관성사 백월화 5,000	밀인사 김춘옥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김은덕 30,000	해정사 정길오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수인사 권오남 1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해정사 고춘배 10,000
관성사 조정숙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해정사 김완식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수인사 원 봉 20,000	정각사 박훈희 10,000	해정사 수중원 20,000
관음사 신막심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이상열 10,000	해정사 자성신 10,000
국광사 최성원 10,000	밀인사 안옥진 10,000	시범사 지 성 30,000	정각사 이수임 5,000	해정사 정보심 10,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이우희 35,000	회음사 장영순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지사 박미선 5,000	정각사 정희연 20,000	무명씨 2,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실지사 손기성 20,000	정각사 조춘자 10,000	무명씨 5,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실지사 이상배 5,000	정각사 조현필 10,000	무명씨 5,000
덕화사 손선경 10,000	백월사 이지연 5,000	실지사 이화수 5,000	정각사 최봉순 10,000	무명씨 10,000
덕화사 손희경 5,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실지사 정연수 5,000	정각사 황영옥 10,000	박홍렬 5,000
덕화사 안효정 10,000	벽룡사 무명씨 3,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정총기 10,000
덕화사 이진출 100,000	벽룡사 박은숙 5,000	실지사 최영혜 5,000	제석사 법상인 200,000	
만보사 김영삼 50,000	벽룡사 보심관 5,000	운천사 배도련 10,000	지인사 김영희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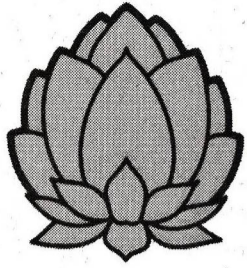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 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특별대담

법공 통리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 대담자 : 어려운 시기에 통리원장에 취임한 지가 엿새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중무행정의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통리원장에 취임하기 전 통리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의 부족과 발원이 없어서 열렬한 복정 당시 종령님과 2시간 동안 독대를 하면서 통리원장 취임에 대한 강한 반대사를 표현하였으나 승단전체의 열렬한 성원과 요구에 의해 통리원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라 중무행정에 있어 특별히 큰 변화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대담자 : 취임후 9개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단의 모든 봉사자들이 종단의 발전을 위해 각자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현재는 활동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고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여 부장급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였으나 참신한 부장급을 인선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어떤 사람이 통리원장직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종단의 발전을 위해 각자가 소신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종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종단의 모든 봉사자들이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중무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각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초창기라 뜻하는 바와 같지 않지만 이러한 활동은 지속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기업체나 정부에서도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종단도 도제양성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해 초창기부터 종령님과 대화를 하여 도제양성을 여러 번 역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대 통리원장 재임시 도제양성비로 겨우 총현상액의 1%를 적립하게 하였으나 만 이는 상징성에 불과하며 앞으로 총현상액의 10%선까지는 적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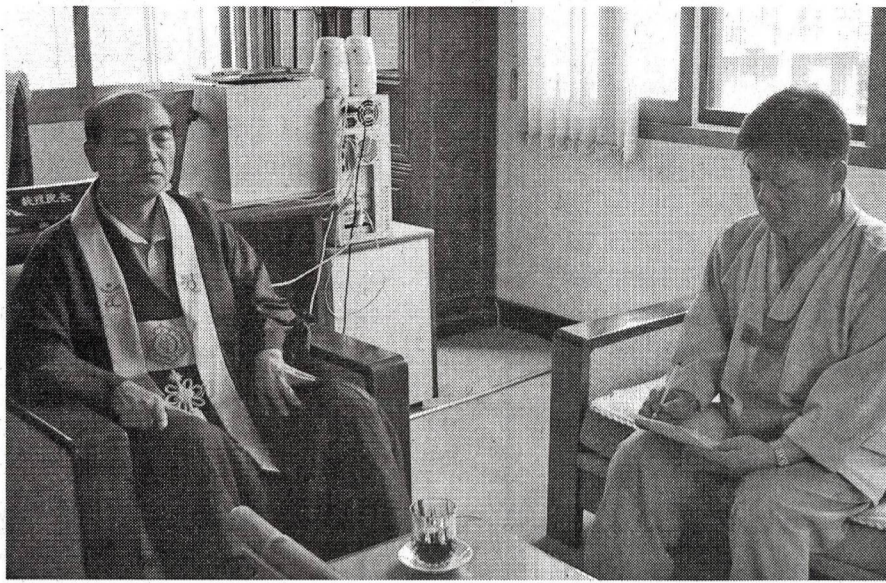
또한 중요한 것은 도제양성을 위한 승단전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즉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양성된 인재를 잘 보호하고 능력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건설, 사회복지, 전문연구원, 예체능 능력자들을 양성하여 탁아소, 양로원, 자성학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중무원들을 상황에 따라 고용하고, 기존 스승님들에 대해 교리, 교양, 1인 1기능 갖기 등 철저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외 성지순례를 통하여 안목과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 현재 대다수 사원의 교화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무행정의 모든 것은 교화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교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전심전력해야 합



니다. 즉 교화활성화는 번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범부들을 구제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화가 부진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면 한국에는 수 천 년 동안 불교는 불상과 사발한 스님과 목탁이 있는 산사만이 불교인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서에 입각해 볼 때 우리 종단은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밖의 의식이나 교화방편 등이 전통 불교와는 크게 차별적인 부분이 첫 번째로 많은 점이고 다음은 인재 양성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교화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사원스승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배출할 때 이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이 초창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스승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차후 교화가 활성화되고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도제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종단과 비교하여 활동이 저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사회복지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는 자비를 실현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러한 자비실현의 장을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활성화 시켜야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현재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재가노인 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한 것에 비교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선에 위치한 수련원을 개조, 양로원으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운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양성도 필수적이며 재정만 확보된다면 이 분야에도 대폭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 통리원장에 취임할 때 전 통리원장의 전언이기로 통리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임기만료 후 통리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과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말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통리원장에 취임할 때 통리원장을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의 마음과 같습니다.

▶ 통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단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입니다. 인사이동에 있어 각자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인사발령이 되었을 때 절대 수순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점에 있어 대승적 협조와 수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종단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단은 구조적으로 가족을 거느리고 생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일선사원의 스승님들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교화를 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것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에 따라 교화가 잘되고 부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선사원의 스승님들은 재가승이라 할지라도 출가했다는 소신과 희생심을 가지고 사사로운 것에 연연하지 말고 대의적인 것에 뜻을 두고 지혜와 복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령을 비롯한 종단의 지도자급 사람들은 물론이려나와 전 승단이 철저한 수행과 계행을 통한 자기 자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대중들에게 존경받는 수행자, 성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수행과 교양, 교학 등 여러 면에서 타의 모

범이 되어야 합니다. ▶ 현재 종령추대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법령의 미비점과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점 둘째, 종단의 정신적 최고 자도자의 선출이 만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셋째, 종령님 열반 후 하반기 49일 불공과 49재 및 종단내 제반 일정 등이 맞물려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종단은 철저한 계행과 수행과 덕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 종령으로 추대되어야 합니다. 종령추대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러한 분이 추대되어야 종단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종령은 총지종의 정신적 지주이며 사법을 통괄하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종단의 선배 및 후배스승님들에게 부탁의 말이 없으신지?

종단은 화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도 화합이요, 둘째도 화합입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의 정신, 나도 잘하고 남도 잘사는 생각, 종단의 모든 봉사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화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화합없이 종단이 발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서로 밀어주고 아껴주며 모든 것을 감싸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자 : 법 경/법정원 연구원
정리자 : 지 정/ 총지종보 기자

이달의 설법문안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생에 집착하고 삶을 소 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과 소유의 관념에서 벗어나 수 있다면 영원한 우주질서 앞에 조금도 두려워 할 것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이니...

해가 넘어간 뒤 땅거미가 짙어지자 그 저녁놀의 잔영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리고 순하디 순한 빛깔! 사람의 마음을 빛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착하고 어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빛깔을 띠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어떤 세월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한결같지만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려면

고요한 침묵이 따라야 하는데 시끄러움에 중독된 이 시대의 우리들은 그 침묵을 익히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만하면 초라한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 봐서인지 바깥 소리를 찾아 이내 뛰쳐나가버립니다. 침묵을 익히려면 밖으로 쳐다보는 일보다는 안으로 들어다보는 일을 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질보다는 양을 내세우는 오늘이 땅의 우리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고만 하지 비우고는 하지 않습니다. 텅 빈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텅 비워야 메아리가 울리고 새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갖 집착과 굳어진 관념에

서 벗어난 텅 빈 마음이 우리들을 가장 투명하고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경전에 "진리를 배우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이다.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

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자기 존재를 마음껏 전개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려운 오늘날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람의 자리

를 지켜나기려면 하루 한때라도 순수한 자기 자신을 존재케 하는 새로운 길들이 있어야 합니다. 얽히고설켜 복잡하고 지저분한 생각이 죄다 사라져 버린 순수의식의 상태, 맑게 갠 날 해가 진 뒤의 그 순하

디 순한 눈빛 같은 무심(無心)이, 일상에 찌든 우리들의 혼을 맑게 씻어 줄 것입니다.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하던 생각을 일단 놓아버리고 텅 비울 때, 새로운 눈이 뜨이고 맑은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역은 전체에서 볼 때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려면 눈

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지를 바로 보려면 바다도 함께 보아야 하고 밝은 것을 보려면 어두운 것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바로 이해하려면 그

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제대로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힘을 바람직한 쪽으로 잘 쓰면 얼마든지 창조적이고 형성하고 향상하면서 삶의 질을 거듭 거듭 높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명력을 가지고도 한 생각 비뚤어져 잘못 써서 버릇이 되면 그것이 열력이 되어 마침내는 자기 자신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끝없는 구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생명력이라도 서로 다른 지배를 받아 한 장미나무에서 한 갈래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다른 갈래는 독이 뱀 가시로 돌아옵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었거나 삶의 목적에 합당치 못한 일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결과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하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가 의식을 하건 안 하건

돌래의 대기에 파장을 일으켜 영향을 끼칩니다.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착한 파장으로 맑은 영향을 끼치고, 착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또한 착하지 못한 파장으로 어두운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 고통을 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그 생명력을 값있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부질없이 탕진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양을 따지려면 밤낮없이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야겠지만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비우는 일에 보다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풀벌레 소리에 귀를 모으면서 오로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 놓시

다. (편집자 주)

제1회 전통등 강습 및 사물놀이 강습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 시 : 11월부터 3개월간
장 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참가비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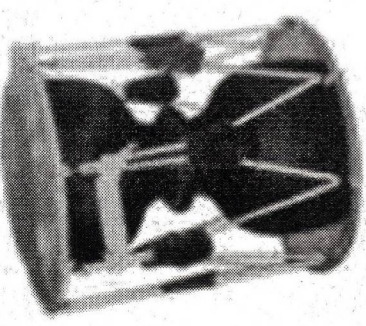
〈강습내용〉

1. 전통등 강습
대 상 : 0명 (총지종교도 누구나)
교육일자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교육장소 : 통리원 2층 반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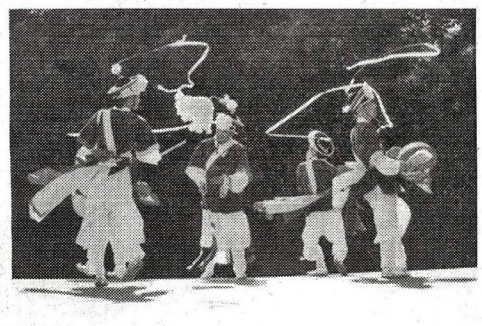
2. 사물놀이 강습
대 상 : 00명 (총지종교도 누구나)
교육일자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교육장소 : 통리원 무용실
※10명이하 신청시 강습은 취소됩니다.

3. 접수 및 문의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 2동 776-2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 화 : (02) 552-1080~3
전 송 : (02) 552-1082
이메일 : panth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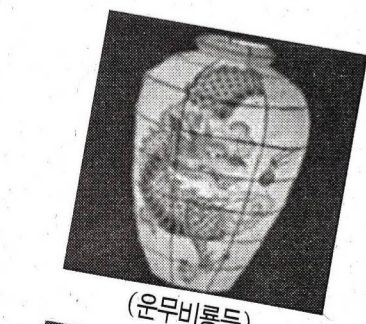
4. 접수마감 : 10월 31일까지



(사물놀이 - 장구)



(사물놀이 공연 2)



(운무비룡등)



(축구등)

제1회 전통등 강습 및 사물놀이 강습 신청서

접수번호 : _____

성 명 : _____

불 명 : _____

소속사원 : _____

성 별 : _____

현 주 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휴대폰번호 : _____

e-mail : _____

본인은 (전통등 강습, 사물놀이 강습) 수강을 신청합니다.

• 위 강습내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하나에 0표 하세요 •
총기 32년 월 일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귀하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⑧

태장계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북방(北方) 천고뢰음여래(天鼓雷音如來)

지난 호에서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오불(五佛) 가운데 서방에 자리잡고 있는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북방의 천고뢰음여래(天鼓雷音如來)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편집자주 >

태장계만다라의 북쪽, 그러니까 중앙 대일여래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래가 천고뢰음여래(天鼓雷音如來)이다. 이 여래는 열반의 지혜와 가르침이 북과 하늘의 천둥과 같은 법음(法音)으로 중생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일깨움을 주는 부처님이다. 바로 깨달음의 체득(體得), 즉 반야의 증득을 나타내는 여래이다. 깨달음의 체득이 북과 천둥으로 상징된 것이다. 즉 천상(天上)에 있는 자연의 소리를 내는 불가사의한 태고(太鼓)로서 석존의 '설법(說法)'을 나타내는 부처입과 동시에 밀교 만다라의 교화에서는 '열반(涅槃)'이라는 적정(寂靜)의 세계에 들게 됨을 상징하고 있는 부처님이다.

이 천고뢰음여래를 산스크리트어로 Divyadundubhi-meghanirghosa라 하며, 금강계 오불(五佛)에서는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이라 한다. 어느 한 곳 빈 곳이 없이 모든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부처님이다. 즉 충만한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부처님으로서 석가모니불을 말한다. 밀교에서는 석가모니불을 불공성취불이라 하며 중앙 대일여래의 사



하였으나 대지(大地)에 손가락을 대어 지신(地神)을 불러 사마(四魔 - 온미(溫彌), 번뇌(煩惱), 사마(死魔), 천마(天魔))에게 이긴 일화는 바로 천고뢰음(天鼓雷音)의 한 유형이다. 그러한 연유로 손가락 끝을 땅으로 향하는 수인(手印)을 취하게 되었다.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항마인(降魔印), 촉지인(觸地印)이라 하며, 이를 합쳐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라고도 한다.

이 천고뢰음여래는 동요없는 굳건한 신심(信心)을 바탕으로 종교적 이상세계(理想世界)의 구현을 나타내는 여래이다. 또한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여 중생구제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 여래의 밀호(密號)를 부동금강(不動金剛)이라 한다.

천고뢰음여래의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고, 앉아 있는 좌대는 연화상(蓮華上)이다. 이 여래를 상징하는 진언 종자자(種子字)는 악(ah)자 또는 함(ham)자이다.

악(ah)는 아(a)자에서 파생된 종자자로서 대일여래의 반야(般若), 즉 깨달음의 덕성(德性)을 나타낸다. 이 여래의 삼매야형(三昧耶形)은 만덕장엄인(萬德莊嚴印)이다. 대일여래의 모든 덕성을 장엄하고 있는 여래이다. 동방 보당여래의 보시행(布施行), 남방 개부화왕여래의 정진(精進), 서방 무량수여래의 선정(禪定)을 통해 결국 북방 천고뢰음여래의 반야(般若)로 귀결되는 만덕장엄의 덕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곧 수행자가 발심(發心), 수행(修行), 선정(禪定)을 통해 성불(成佛)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어느 한 곳 빈 곳이 없이 모든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부처님 부동(不動)의 신심(信心)으로 종교적 이상세계(理想世界) 구현

방 사불 가운데 한 부처님으로 배대시키고 있다. 성소작지(成所作智)로 이루어진 부처님으로서 자리아타(自利利他)의 행을 성취하므로 불공성취라 한다. 이들 모두가 동체(同體)인 부처님이다.

『대일경소』에서는 태장계의 천고뢰음여래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뜨거운 것을 피하여 청량(淸涼)하게 적정(寂靜)에 머무른다.」고 하였다. 일체의 번뇌를 끊은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늘의 큰 북이 울리고 천둥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 깨닫게 하는 교화설법(教化說法)하는 것을 법음(法音)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법음이 하늘의 천둥과 번개의 소리요 큰 가르침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의 예는 석존의 성도 일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석존이 보리수(菩提樹) 아래에서 성도(成道)하려 하였을 때, 악마(惡魔)의 유혹에 번민(煩悶)

것이다. 이 여래의 수인(手印)은 왼손은 권인(拳印)을 하여 손 안쪽을 위로 하여 배꼽 앞과 무릎 위에 두며, 오른손은 바닥을 안쪽으로 하여 무릎 끝에 두고 땅을 향하게 하는 촉지인(觸地印)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석존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에 이른 항마인(降魔印)과 동일한 수인(手印)이다. 존형(尊形)은 황금색(黃金色)으로써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견가사(偏肩袈裟)를 수하여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천고뢰음여래의 진언은 「나마 사만타 붓다남 함 하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함 하 사바하'라는 뜻이다.

< 자료정리 범장원 >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태풍 매미가 지나간 자리

태풍 매미는 59년 태풍 사리에 맞먹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었다. 특히 마산시내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홍수로 집이 쓸려 내려가고 공장이 무너지고 배가 육지로 올라와 마을을 덮치는 등 엄청난 물질 인적 피해를 가져왔다.

해군에서는 미리 태풍의 위력을 감지하고 군함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박하여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서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것이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점을 일

고 집착할 무엇이 있었는가? 부처님께서 일찍이 인생무상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뼈저리게 인생무상을 생각할 기회가 또 있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사유를 통해 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선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깨닫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무상을 깨닫고 집착을 여의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해 일

수재민들을 보며 부처님의 제행무상을 인식 우리의 삶은 자연과 연관있는 연기의 법칙

본이나 미국 등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해지역에 달려가 복구활동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수해성금을 모아 서로 돕는 정을 나누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피해지역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고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고, 끊어진 다리를 잇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지극 시점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이 다 나온 듯 하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 집착의 고리를 끊는 작업이다.

도시 하나가 바닷물에 잠기는 것이나, 홍수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이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이 한장 쓰레기로 변하고 말았다. 거기에 의지하

부러 시체 옆에서 수행을 하거나 무덤가에서 수행을 하곤 했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자리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열대 해양에서 생긴 수증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로 다가온 것이 태풍이다. 태풍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또한 지금의 태풍을 만들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내가 가진 선한 의지와 행동과 말이 주위에 돕고, 내가 가진 악한 의도와 행동과 말이 주위에 상처를 입힌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자리에서 무상과 연기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한주영/불교연구개발원 연구과장 >



이달의 명상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마침내 내 몸을 해치게 되느니라. 또한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듣거든 부모를 비방하는 말과 같이 들어라. 오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다른 날 도리어 나의 허물을 논하게 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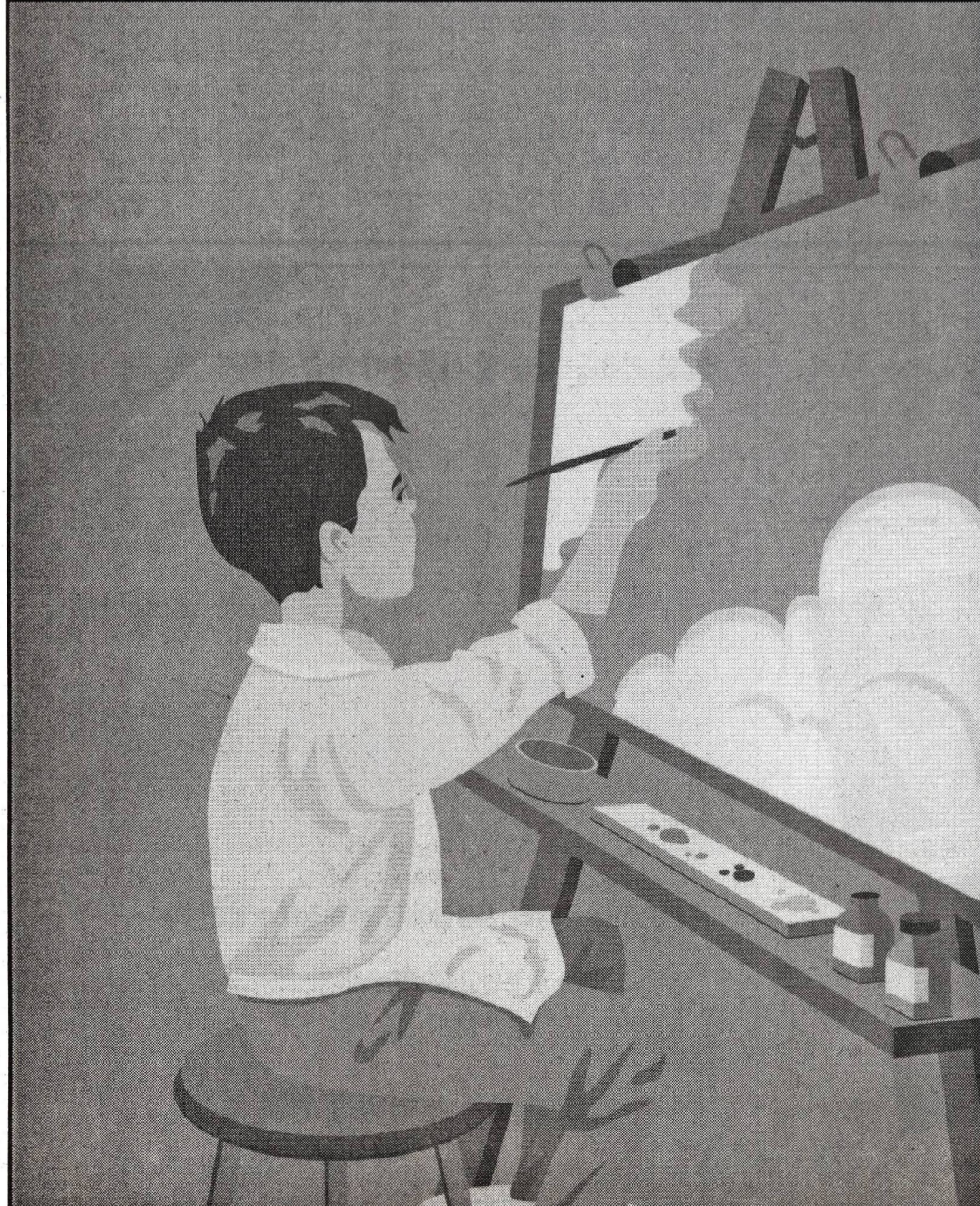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젊어서부터 욕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금방 길들여집니다. 남의 욕을 자꾸하는 버릇을 들이면 접잡은 자리에서도 자기 모르는 사이에 욕이 튀어 나옵니다. 사람을 툭툭 치는 것

이 버릇이 되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툭툭 치게 됩니다. 발로 차는 버릇을 들이면 길가다가 무엇이든 걸리면 툭 차 버립니다.

손짓·발짓·말짓으로 만들어낸 습관들. 참으로 이들 습관은 내 몸에 빨리 붙어버립니다. 이 모든 습관들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나하고 관계 없다고 해서 남의 허물을 함부로 노출시키거나 욕을 하게 되면 그 말의 빛을 결국은 내가 받게 됩니다.

물론 나를 욕하는 소리가 좋게 들릴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싫은 소리에 마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주게 되면 나만 어지러워 질 뿐입니다.

< 편집자 주 >



동림기획/동아상사

(Orient Communications)

대표 修正 김 동 운
관성사 교도

인쇄 전문 업체

- 카타로그, 브루슈어
- 리플렛, 팜플렛
- 전단, 포스터
- 서적(양장, 무선)
- 다이러리, 수첩
- 청첩장, 연하장

- 카렌다(일력, 주력, 월력)
- 리벨, 스티카
- 인하BOX
- 행택, 행가
- Sample Book
- 기획, 판촉물, 기타 인쇄물 일체

서울시 중구 황림동 25-15 삼우빌딩
대표전화 : (02)2279-6123, (02)2279-6125
FAX : (02)2274-8421, H·P : 018-361-9663
e-mail : orient-kim@hanmail.net

총지논단

실천 공부 ④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국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민국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이루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터 유교를 수입하다가 고려 오백년은 불교의 이면에 유교가 자리왔고 조선 오백년은 유교의 이면에 불교가 살아왔으므로 당대 불교는 서교(西敎)와 세계적 벗이 되어질 것이다.(현대는 이원주의 시대인 까닭이다.)

진각종은 유교 대신에 실천을 주로 하는 통속적인 재가불교가 현재극락을 세우고 민주주의에 부합되며 유교는 아닌 데도 실천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윤리적 고위사상에 합치되어서 봉건구속을 해탈할 수 있는 종파가 되어 있는 까닭이다.

자유시대는 특히 유교를 전문으로 세워서 삼강오륜(三綱五倫)과 인도(人道)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천년 동안을 가르쳐 왔던 까닭으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진화적인 도(道)로 일상 행하게 되어 있다. 종교의 인간적 실천교화는 곧 유교와 같아서 악한 것을 버리고 착한 것을 행하는 것은 어느 교에서라도 다 윤리적 부문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대승적 윤리는 도리어 향상 되어질 것이다.

동양교로서 유무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유상적 불법승 삼보 사물의 계율과 석가모니불을 교주로 하고 불공을 주로 하는 삼보불교(三寶佛敎).

둘째, 무상적 법보화 산신 이불의 진리와 법계 진각법을 교주로 하고 각오(覺悟)를 주로 하는 심인불교(心印佛敎)로 나누어 진다.

서양교로서 유무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유상적 마리아 성모를 체(體)로 하고 모세 율법과 미사를 주로 하는 천주교.

둘째, 무상적 하나님 성부(聖父)를 체

(體)로 하며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를 주로 하는 예수교로 나누어 진다.

동서 각교가 이원주의로 자유 세계의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자유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현세는 이원주의시대인 까닭이다)

강한 사람은 공의(公義)를 세울 것이요 약한 사람은 지혜를 개발할 것이다.

국민은 지혜를 밝혀야 하고 지구의 반을 차지한 서양은 옳은 것을 세울 것이며 지구의 반을 차지한 동양은 지혜를 받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교는 옳은 것을 주장으로 세우고 있으며, 불교는 본래 지혜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고 발달하는 이원 상대가



지나 왔으나 봄과 여름 동안에는 하늘의 따뜻하고 뜨거운 기운을 직접 받아안고 크게 되며 가을과 겨울에는 하늘기운은 간접적으로 받게 되어 두터운 땅을 또 받고 돌아서 나고 크고 익고 감추게 되는 일년에도 상반과 하반, 선후본말이 달라져 있는 것과 같이 잠시 인사에도 선후본말이 달라져 있으며 하루인사에도 선후본말이 달라져 있으며 백년인사에도 선후본말이 달라져 있으며 천년인사에도 선후본말이 달라져 있는 것이다. 지혜가 어두운 중생은 지나간 역사가 있어도 그때 내용을 알아 응용하지 못하거나 할 때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진 과거와 앞에 오는 것을 미리 알아서 현재의 행복을 세우는 이는 물의 본말과 일의 선후, 법계의 진리를 내증하는 각자가 되어서 중생을 화도(化度)하게 되어야 한다.

삼보를 주로 숭상하는 재래의 출가불교는 동양적인 예(禮)를 숭상하는 의범(義範)을 만들어 놓고 통속적 제왕적 독존적 씨족적 조상적 고위사상을 보존하는 교단이 되어 있는 것이요 삼신을 주로 세우는 오늘날의 재가불교는 우주의 진리를 개발하고 자기의 지혜를 밝히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 놓고 해탈적 사회적 자유주의를 육성하고 대승적인 교단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상하준비도 없고 이목구비가 없는 바다와 같은 전체적 불설(佛說)의 한 문(門)만 열게 되었던 과거불교는 남녀 내외를 분별하고 상하계급을 예(禮)로서 세우던 현실 유교는 법계영식이 윤회하는 것을 모르고 삼재현상이 도(道)라 바꾸면서 무궁한 것만 알아서 그 사회를

차지하고 그 천하를 움직일 때 하천한 대우를 받아 가면서도 유교가 현실에 태과(太過)하지 않게 진리체가 되어서 하나는 통합하여 있었던 불교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삼강오륜을 세우던 유교 기관은 일찍 없어지고 종교적 기관이 주인공으로 차지할 이 때에 와서 남의 보좌로 되어 있는 때와 같은 불설(佛說) 하나만 으로서는 사회질서를 세우는 근본이 되지 못하고 민족의 자결성을 세우는 근본이 되지 못하며 선을 세우는 근본이 되지 못하며 인사에는 옳은 것을 세우는 근본이 되지 못하며 일체가 다 병들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병을 고치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오직 불교가 천중 만파로 나누어졌어도 각파가 서로 소통하지 않고 각자의 종지(宗旨)를 확고하게 세우는데서 유교가 예(禮)로서 죽어도 절개를 굳게 가지는 것과 같이 각자가 최고로 발전한 백천 종지의 광명은 널리 사회에다가 한 가지 비추어져서 대승적 윤리와 사회적 풍기가 발라지고 모든 기관은 강령과 조목이 다 실천적으로 세워지게 되어 일체 병든 사람이 수술한 것과 같이 다스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유교는 만 성문 효(孝)로서 소가족제가 발달되어서 예(禮)가 성하게 되므로 어진 국가로서 흥왕하였던 것이요 현대, 종교는 천중 만파 종지로서 대가족제가 발달되어서 지혜가 열리게 되므로 옳은 국가로서 흥왕하여지는 법과 바꾸어지게 된 것이다.

유교시대의 남녀정조는 예(禮)를 세우는 법절에 따라 서게 되었고, 종교시대의 남녀정조는 종지(宗旨)를 세우는 정신에 따라 서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지혜를 힘써 열지 않는 때는 예(禮)를 세우게 되고, 예를 힘써 세우지 않는 때는 지혜를 개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의 종지를 가지는 것은 정조를 가지는 것과 같다.

(자료제공 종학연구소)

[지혜]

새로 혁명 할 때 영원하게 왕성하려면 상대원리를 세워야 한다. 진리불교는 실상불교가 있어서 그 자체가 오래가고 실상불교는 진리불교가 있어서 그 자체가 바꾸어 지게 되는 것과 같이 또 크게 말하지만 동양불교는 서양예수교가 있어서 옳게 되고 예수교는 동양불교가 있어서 지혜가 밝아지게 되므로 세계적으로 크고 영원하게 되느니라.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음과 양 같이 상대되어 오므로 신하 때 설총유로부

불교는 악한 것을 버리고 착한 것을 행하는 지혜를 증득케 한다

강한 사람은 옳은 것을 쓰는 데 이길 것이요 약한 사람은 지혜를 쓰는 데 이길 것이다. 이것은 진각법에서 각각 부여된 본능이니라. 서로 바꾸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옳은 것은 지혜를 반영해서 공의(公義)가 되고 지혜는 옳은 것을 영행해서 회사가 되는 까닭이다. 일가의 남편은 옳은 것을 세우고 아내의 지혜를 열 것이며 한 나라의 정부는 옳은 것을 쓰며

되어서 음극 양극으로 상부상조가 되어 항구하게 되고 만일 본명(本命)과 종지(宗旨)에 어긋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서로 방해가 되느니라.

만물은 하늘의 기운을 주로 받아야 하는 때도 있고 또 땅의 보호를 주로 받아야 되는 때도 있으나 예를 들게 되면 만물은 겨울 동안에는 따뜻한 땅 속에 숨어서 하늘기운 찬 것을 피하고 겨울을

자유주의를 육성하고 대승적인 교단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상하준비도 없고 이목구비가 없는 바다와 같은 전체적 불설(佛說)의 한 문(門)만 열게 되었던 과거불교는 남녀 내외를 분별하고 상하계급을 예(禮)로서 세우던 현실 유교는 법계영식이 윤회하는 것을 모르고 삼재현상이 도(道)라 바꾸면서 무궁한 것만 알아서 그 사회를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피부건조증



내면의 건강상태를 들어내는 거울이 피부입니다. 건 강한 피부를 가꾸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피부는 여성의 미용과 아름다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건조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철이 되면 종던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탄력도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면 성인의 대표적 피부질환인 건선이나 어린이에게 빈발하는 아토피 피부염도 더욱 심해진다.

건조한 날씨, 차고 뜨거운 공기 접촉 등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위축시킨다. 이로인해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피지의 분비가 줄어들어 가을철 피부는 매우 건조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피부의 수분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인체와 외부 환경사이에서 장벽역할을 하는 각질층 피부가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각질(角質) 덕분이다. 목욕 시 때를 밀면 깎여 나가는 부분인 이 각질층이 인체와 외부 환경사이에서 장벽(障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습도가 50%이하로 떨어지면 각질층도 이에 영향을 받아 말라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부건조증은 피지선이 비교적 적게 분포된 넓적다리과 정강이 부위에서 먼저 시작돼 엉덩이, 팔꿈치를 거쳐서 전신체로 번지며 심하면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환부를 가렵다고 하여 긁게 되면 피부 표면이 갈라지거나 혈고 피가 나서 다른 감염을 유발하거나 피부염, 건선습진으로 발전하고 주름과 피부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0대 이후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었으나 헬스나, 수영, 잦은 샤워, 밀폐된 고층빌딩과 난방이 잘되는 아파트 생활이 많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흰 비늘,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단계를 지나 피부염의 상태에 이르면 이를 건선 습진이라고 부른다. 건선습진을 집에서 치료하기는 어렵다. 자가치료를 식초나 소금물 등을 바르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를 주의하도록 하자.

피부 건조를 막는 방법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습기, 빨래, 어항, 실내화초 등을 이용해 습도를 높여 주는 것이 좋다. 또 목욕할 때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목욕 횟수는 1주일에 2~3회로 줄인다. 온탕목욕보다는 가벼운 샤워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거친 때밀이 수건으로 박박 문질러대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가족이나 건조해진 겨울 날씨에 피부가 더욱 매마르게 되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습관

처럼 가려워지는 경험을 한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바로 지나친 비누사용과 피부 자극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저녁식사 후 체온이 올라가면서 전신에서 발작적인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피부건조증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목욕 횟수부터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또 목욕 후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줘야 피부건조증을 막을 수 있다. 보습제를 바를 때는 타월로 완전히 물기를 닦아낸 후가 아닌, 다소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요령이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얼굴에 쉼을 이용해 증기를 쏘여주거나 울무, 쌀, 백지, 맥분등 등을 가루로 만들어 마사지를 하거나 검은콩이나 검은깨 등 보습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손바닥을 마찰하여 얼굴과 피부를 비벼주고 두드려주어 혈액순환을 도왔으면 제철과일을 충분히 먹어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피부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뎃),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풍경소리

깨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줄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시간의 잔고는 아무도 모른다.
 '쇠털 같이 많은 날' 애저고 하는 것은
 귀중한 시간에 대한 모독이요, 망언이다.
 시간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잠자는 시간은 휴식이요, 망각이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죽어 있는 시간이다.
 깨어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만큼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려고 하지 말라.
 깨어 있는 그 상태를 즐기라.
 보다 값있는 시간을 활용하라.
 - 법정스님/길상사 회주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고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물이 반쯤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자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 스타니파타 증에서

아름다운 관계

벌은 꽃의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줍니다.
 사람들도 남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을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씌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꽃과 벌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삶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 장용철/시인

기슴을 적시는 샘물

무성한 숲만이 온갖 새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굳게 기슴을 닫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파스함이 없는 기슴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걸어가는데
 것처럼 목마르고 힘겨울 것입니다.
 작은 실개천 하나가 넓은 초원을
 두루 적시듯, 지치고 힘든 나그네에게
 한 모금의 샘물은 곧 목숨의 근원이 됩니다.
 파스한 마음은 세상의 기슴을 적시는 샘물입니다.
 - 김영희/시인

(자료제공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도 한마디

불제자의 바른 신앙생활

화내는 것 없이 항상 당당하게 빛나는 마음의 모습
 지키며 자기가 짓고 자기가 지은 댓가를 치름을
 알고 미소 지으며 중도(中道)에 입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이 마음을 닦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남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버리고 나 자신
 을 수행하여 마음을 닦아 모든 이가 도피안에 이르는
 햇목처럼 법희선열(法喜禪悅)에 머물렀으면 합니다.
 가합(假合)의 이 몸 벗어나 생에 대한 집착도 여
 원 빈 마음으로 생활하면 비로소 온 세상을 얻고 즐
 거할 것이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한 마음, 상(相)없
 이 나, 너를 벗은 생사심(生死心)마저 저버린 불제
 자로서 스스로 수행하면 이 세상이 바로 쿠락입니
 다.
 지나치게 열려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꿈같은 인
 생, 번뇌망상 극복하여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여 무
 아의 나로 살아야 합니다.
 알음알이를 넘어서 불심으로 부처님제자답게 허
 공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모든 분별심을 넘어서 산
 은 높고 물은 흐르는 이치를 깨닫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 몸도 쓰다가 없어지듯 참된 나 자신의 성품을
 찾고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
 도록 철저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
 해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선수 스님/ 한미음 구도회 법사 >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
 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a@hanmail.net

투 투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22화-



진짜로
 별뿔별이
 떨어지나봐요!

별뿔별이
 아니라
 소나기
 랍니다.

히히히...
 바로 이때
 도망가자.

글.그림/정수일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함미축법
 무안계
 내지무의식계~

이임?
 대성사님이
 무슨 주문을
 외운 것
 같은데...!



삼장법사님,
 주문을 풀어
 주시와요.

허허..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말고 법문을
 잘 들어라,
 오공아.

경의 뜻은..
 이런 까닭에
 "공"가운데에는 "색"도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도 없으며
 "색성함미축법"도 없으며
 "안계"내지
 "의식계"까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으응?
 뭘 하려는
 거죠.



후후~

나의 분신들아~
 대성사님을
 꼼짝 못하게
 포위해라!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요.



에잇!

오아악!
 안돼,
 안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알아보기로
 해요, 떡입술각자님.



먼저, 시고(是故)의 풀이
 부터 해보면..
 "시"는 이런, 이..의 뜻이고
 "고"는 까닭이라는 뜻이므로
 이런 까닭에 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 "공중무색"은..

stop!
 그 건지든
 양니야



그건 아주
 쉬운 뜻이지요,
 일단 우산
 좀 씌워
 주세요.



공중(하늘)은
 색깔이 없다.
 라는 뜻이
 아닐까요?
 헤헤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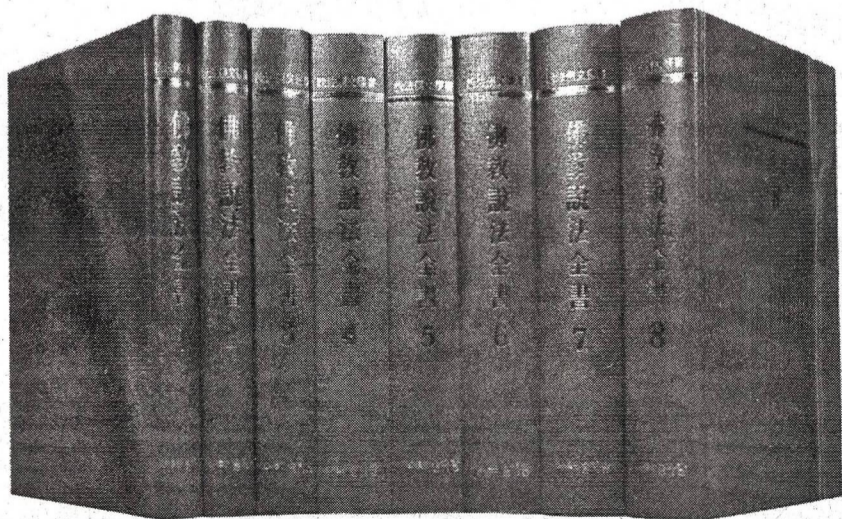


공중무색이
 아니라,
 공중백색이군요
 흐흐흐..

허허허..

불교설법전서 8권 발간!

지난 14년 동안 스님들과 포교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바로 그 책, 불교설법전서!



- 4x6배판
- 1권(500쪽) 3만원
- 2권(593쪽) 4만원
- 3권(610쪽) 4만원
- 4권(796쪽) 4만원
- 5권(718쪽) 4만원
- 6권(800쪽) 5만원
- 7권(900쪽) 5만원
- 8권(790쪽) 5만원

창립14주년 기념 특별판매



행사 · 교리 · 봉사 · 수행 · 시사 등 주제별로 구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솔바람 · 도서출판 솔바람
 서울시 중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403호
 Tel. (02)720-0824 Fax (02)722-8760
 E-mail : sulpub@hananet.net

불교지도자의 역할과 그 수행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서
 스님, 재가법사, 포교사 및 각급 신행단체 간부님들의 필독서!

불교지도자론 I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키워도록 하는 지침서.
 국제신문 이흥곤 기자
 이상적 불교지도자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
 현대불교 여성평 기자
 한국불교의 지도자상과 지도력 배양을 논한 최초의 책
 만불신문 신혁진 기자
 이 책은 불교리더십의 이론을 제공하면서, 포교현장의 지도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신국판 456쪽 값 20,000원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임근동 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이하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노라면,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찌든 우리를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본각 스님
 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지은 진언을 우리말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불립문자"라는 말대로 문자 위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조연현 기자

저자 임근동 (한국외대 인문학과 강사) 신국판 208쪽 값 1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천성·금정산 기존 노선대로 공사

환경연대와 불교계 강력반발



정부는 9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조정회의에서 "불교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산은 공론조사 결정하고, 천성·금정산은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며, 공사중 자연환경 및 수행풍토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정부 발표 직후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존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며, 정부가 노선 재검토위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채 노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불교계와

합의를 근본적으로 위반 한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환경연대와 불교계는 노무현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북한산, 천성·금정산 관통도로 백지화를 지키라고 주장하며, 부산에서 38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지울스님은 "환경은 우리들의 삶의 생명수이며,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하였다.

불자들의 한마당 산사음악회 주5일 근무제로 인기 상승

지역문화 축제로 자리잡은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사찰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로 여가를 찾아 떠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맞이하는 음악회는 일반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의 적극적인 포교에 의해 많은 불자들이

개종하였지만 이러한 산사음악회로 인해 불교를 포교하는 이중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각 사찰은 산사음악회에 유명가수, 명성이 높은 팝 오케스트라를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여 음악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반인들도 산사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때문에 가슴깊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고 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글·그림: 정수일 출판사: 운주사

"오늘은 아랫마을 김명감 생일이야. 오늘을 위해 일주일을 끊었지. 오! 바로 저기군. 문을 두드려야 할텐데 며칠 끊었더니 힘이 없어 손이 울라가지 않는구나. 달달달, 아이고 어서오게 왕영감. 아니 거서서 여기까지 왔나. 김명감 나중 일으켜 주게...

아이고..." 총지종보의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에 연재하고 정수일씨가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를 출판하게 되었다. 정수일씨는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고, 불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고 있는 『백유경』중에서 40여편을 뽑아 만화적인 과장과 유머를 가미하여 재미있게 편집하였고, 불자 및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불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보람되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음종 중정 죽산스님 추대

11월 서울 묘각사에서 추대식
대한불교 관음종은 지난 21일 중정추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0년 10월 제 5세 중정 해운 스님의 일반으로 권위중인 제 6세 중정에 포함 약사사 조실 죽산스님을 추대하였다.

죽산스님은 1934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55년 탈해사에서 운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관음종은 추대식을 오는 11월 총본산인 묘각사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신행체험 ⑤

묘한 인연



김성민(월광인)보살 (총지사 교도)

2003년 새해 불공이 지난 지도 몇 년째 무성할 줄이 우겨져 여름인가 하고 느끼고 있을 때 며칠 전 바람에 떨어진 은행잎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월의 강물이 아무도 모르게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가을농사에 큰 지장이 많을 것 같다. 하늘은 검게 그늘진 날, 기본도 날씨처럼 우울한 날! 지난날들을 더듬어 보면서 걸어도 밟아줄 뉘돌아본다. 복지화 스승님과 저는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포항에서 교화할 때 젊은 연세로 그때는 식량이 배급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면 식사를 거를 정도였다. 복지화 스승님께서 정직한 실천이 으뜸이라 생각하고 올바른 일이 생기면 실천에 옮기시는 원리원칙을 강조하셨다. 월초불공, 49일 불공 때만 소금만 잡수시고 갖은 일, 좋은 일을 가지지 않고

정직한 실천이 으뜸으로 실행을 강조한 원칙 중요 모든 집착 번뇌 버리고 사심없이 남을 위해 봉사

고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셨다. 서원당을 단 한번 방문한 보살이 자성일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심리를 걸어서 방문하시던 스승님! 버선 신발에 물집이 생겨도 보살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아픈 발을 이끌고 일사천리로 방문하시던 스승님! 그런 스승님의 모습이 눈 앞에서 아련히 떠오른다. 복지화 스승님께서는 진각중에서 총지종으로 개종하여 북아현동에서 교화할 때 난방도 들어오지 않은 서원당 결핵실에서 조그마한 연탄난로를 가운데 두고 지내셨으며, 낮에는 보살들과 같이 생활하였지만 밤이 되면 추운 방에서 혼자 지내셨다. 그러한 힘든 가운데 보살들이 없을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포개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셨다. 이러한 복지화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현대의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이다 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나올 것만 같다. 아이들에게는 자성학교에 다니면서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하는데... 갑자기 나도 어린 시절 자성학교에 다니면서 연필 한 자루를 선물로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던 일이 생각난다. 그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0여년을 넘어서고 있다. 포항에서 복지화 스승님께서 교화할 때 스승님은 의사였고, 어머니였다. 과 번뇌를 버리고 사심없이 행동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챙기고, 사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보살들이 먼저 알아본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행동에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남에게 손해보는 마음으로, 남에게 양보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복지화 스승님을 생각할 때 마다 눈물이 난다. 중생제도라는 인연의 업에 의해 하루도 편안히 쉬지 못하고 오로지 힘과 고통 받은 보살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봉사하였으며, 남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는 것이 당신의 행복으로 생각하셨다. 총지종이 창종한 지도 30년을 넘어서고 있다. 초창기에 스승님들은 단칸방에서 여러 자녀들을 데리고 생활하시고, 아무리 먼 거리라도 교도들을 일일이 방문하시며 혹은 교도가정에 불편이나 힘든 일이 없는 지 보살피시며 다녔다. 그 때 고생하신 스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총지종이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도 복지화 스승님처럼 인생의 황혼기에서 목놓아 찾아 헤매는 보살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훌륭한 스승님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이것이 바로 복지화 스승님 아니 모든 초창기 스승님들의 간절한 염원일 것이다.

생활속의 밀교

진정한 불공은 참회에서 시작

'이전에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무리로 탐진치에 연유하여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이니 이제 참회합시다.' 범어사경에 들어가면 총지종도들은 금강합장을 하여 반드시 '참회서원'을 한다. 이를 한역경전에서 찾아보면 '아식소 조제악업 개유무시탐진치 종신어의지소 생 일체아금게참회(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瞋癡 從身語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라 하고 있다. '사심 회염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 종단은 일반 현교와는 다른 독특한 법요를 채택하였는데, 그 하나가 바로 참회서원이다. 참회서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육십 회염경' '보현보살행품'에는, '일체제군생 탐에치치연 아담위제멸 무량악도고(一切諸群生 貪·癡·癡然 我當悉除滅 無量惡道苦)', 즉 '일체 모든 중생들이 탐욕·성냄·우치에 불타고 있나니, 내가 마땅히 무량한 악도의 고통을 없애주리라 하였고, '80권 회염경' '보현행품'에서는, '일체제중생 탐에치치연 아담상구탈 열명악도고(一切

諸衆生 貪·癡·癡然 我當悉除滅 無量惡道苦)'라 하였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탐욕·성냄·우치에 불타고 있나니, 내가 마땅히 무량한 악도의 고통을 없애주리라 하리라.'는 뜻이다. 소아(小我)에서 벗어나 대아(大我)의 실천행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서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서원은 먼저 진정한 참회서원에서 비롯된다. 참회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참회는 자기성찰과 정진수행으로써 가능한 일

자는 죄를 참회했다. 이날을 포살일(布薩日)이라고 한다. 안거(安居)가 끝난 마지막 날에는 안거기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공개 참회하기도 했다. 이날을 자자일(自恣日)이라 한다. 참회는 크게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으로 나뉜다. 이참(理懺)은 지은 죄의 실상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再犯)하지 않는 참회를 말하고, 사참(事懺)은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피가 나오는 참회라 하였다. 참회란 마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얼마나 무서운 결심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참회를 하고 나면 용서되지 않을 일이 없고 원광과 수원을 가질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연화(蓮華)의 세계요 불국토(佛國土)의 세상이다. 지난 세월 동안 이미 몸과 입과 뜻으로 수많은 지어온 죄업에 대해 깊이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의 죄업을 짓지 않고 오로지 선업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회는 서원과 계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참회가 따라야 한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정진수행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절실하지 않으면 참회는 일어나지 않는다. 절실한 마음으로 염승정진을 해보자. 월초불공은 이러한 수행을 반복해서 한 단계 자신을 올려놓고 수행에 진전을 가져오게 하는 '특별수행기간'인 것이다. 앞으로의 월초불공에서는 '참회하는 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법경/법정중 연구원)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h3>설립취지</h3> <p>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현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p>	<h3>지역복지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h3>청소년복지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h3>후원회 가입안내.....</h3> <p>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p>
<h3>주요사업내용</h3> <h4>노인복지사업</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h4>재가복지 사업</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h4>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h4>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궁당 건립 추진 <h3>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h3>	<h3>회 원</h3> <p>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p> <h3>후원금 납입방법</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을 찾아서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목소리에 부처님의 법을 심고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의 화음은 진언의 향기가 솔솔~

정각사 경내를 들어서니 가을 빛 하늘 속으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너울 너울 춤을 추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의 씨앗을 뿌리며 훨훨 날아가고 있다.

눈을 뜨고 바라보면 어디서나 부처님 모습
한 생각 비로 둘러 번뇌 끊고 보니
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없고
평등한 성품속엔 나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 인 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 사바세계 가득하네

운회의 고애에서 피안언덕 이르러니
어두웠던 나의 마음 한순간에 밝아지고
본래의 천진면목 진실하게 드러나네
위없는 남의 진리 영원한 빛 가운데에
열반의 대합창이 온 누리에 가득하네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려 퍼지는 정각사 경내는 마치 대 열반의 세계, 사바의 세계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묘한 심정이었다.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은 20년 전 창단되어 부산지역 불교 합창단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역사가 깊은 합창단으로 부산불교 음악제, 불교연합 합창제, 부처님오신날 봉축 합창제 등에 참가하고 있어 합창단 단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10년 7개월 동안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단원을 이끌고 있는 황윤희(수전정) 보살은 "우리 합창단은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이 없이 활동하기 힘들다. 노래가 좋아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합창단에서 부르는 노래는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마음과 노래가 일치가 되어 부르기 때문에 눈물없이, 참회없이 부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합창단은 노래보다도 깊은 신심과 부처님에 대한 깊은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온 단원들은 서로서로 도우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메아리 붓다의 메아리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메아리 먹구름 헤치고 응달을 양달로
은 겨레 가슴에 퍼져가는 메아리 우리는 메아리
붓다의 메아리 파랑고 싱그러운 붓다의 메아리

우리는 메아리 붓다의 메아리 먼 겨레 먼나라
맺어주는 메아리 괴로움 나누고 슬픔을 달래며
저 하늘 끝까지 퍼져가는 메아리 우리는 메아리
붓다의 메아리 파랑고 싱그러운 붓다의 메아리

생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인연에 의해 합창단이 발전하고 있으며 항상 열린 공간으로 모든 보살들이 단원에 가입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합창단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경남 지회장인 신인복 보살님과 여러 보살님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찬 합창단이기 때문에 종단의 행사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사실적인 면과 종단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경제적,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합창단 연습실에 들어서니 많은 수의 단원들은 아름다운 음성만큼 얼굴에는 환희에 찬 환한 미소로 아름다운 의복으로 단장하고 노래하는 모습은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흘러가는 물소리, 비단위에 옥구슬이 주르르 굴러가는 목소리 같았다.

이러한 합창단의 실력은 전국 어느 합창단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20년의 전통만큼 노래하는 보살은 선배와 후배들간의 돈독한 우정으로 동근 수레바퀴처럼 모나지 않고 동글게 생활한다.

만다라 합창단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사시사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각사 합창단 연습실에서 아름다운 멜로디의 협주곡을 만들고 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결코 하루아침에 성불에 이를 수는 없다. 성불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수행을 통해 성불에 이를 수 있듯이 합창단은 아름다운 협주곡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며 고생한 덕분에 지금은 불가에서 말하는 성불의 경지, 최상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수준이 대단하다.

부산지역 불교 연합회에서는 만다라 합창단의 지원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지역에서 만다라 합창단이 차지하는 역할이 중차대하고 비중이 크다.

합창단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의식곡인 참회가와 오대서원으로 시작한 후 본 연습을 하게 된다. 의식이 끝난 후 붓다의 메아리를 연습한다.

노랫말처럼 합창단의 노랫소리는 붓다의 메아리처럼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고 먹구름 헤치고 응달을 양달로 만들며 괴로움을 나누며 슬픔을 달래며 저 하늘 끝까지 퍼져가고 있었다.



합창단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그저 즐겁고 환희한 마음 뿐이었다.

합창단은 음성공양으로 즐거운 일에는 즐거운 음악으로 흥겨움을 돋우고, 슬픈 일에는 슬픈 일에 참석하여 슬픔으로 가득찬 이웃들을 위로하며 항상 이웃과 함께하는 합창단,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합창단으로 활동하며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합창단 단원들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로 가득차 있다. 괴롭고 힘들 때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면 기분이 전환되고 노래 말 속에서 숨어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 세상의 삶이란 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업장도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속에서 삶이 풍유하고 운택하며 복잡하고 바쁜 일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에 감사함을 느낀다.

님을 모십니다. 이 마음 한 가운데
연꽃송이 벌어지듯 내마음 열리고
내입술따라 열려 남게 노래바칩니다.
깊은 무명 밝히시어 꽃으로 앉으신
님을 모십니다. 이 마음 한 가운데
보리마음 법니다. 열반언덕 향하여

님을 모십니다. 이 마음 한 가운데
연꽃송이 피어나듯 반야지애드러나고
님의 법을 따라 물랑중생 건집니다.
고통바다 저 중생들 감로수로 적신
님을 모십니다. 이 마음 한 가운데
보리마음 법니다. 열반언덕 향하여



또한 부처님과 합창단이라는 인연을 통해 얻어지는 공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노래를 부르며 솟아나는 참회의 눈물,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오늘 따라 며칠 동안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찬 하늘에 맑은 창공사이로 깨끗한 하얀 구름이 동실동실 흘러다니고 있다. 이러한 맑은 창공처럼 합창단의 노랫소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운을 남긴채 흘러간다.

